

## 베를린에게 보답을!! (Give Something Back to Berlin!!)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라는 명성을 쌓고있다. 동서독으로 갈려있던 오랜 기간동안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었던 도시였지만, 통일 후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베를린의 문화는 전세계의 창의적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독일의 어떤 도시보다 다양한 이민자들이 베를린에서 창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스웨덴 출신의 젊은 기자이자 작가인 아나마리아 올슨(Anamaria Olsson)은 2008년 유학생 신분으로 베를린으로 이주하였다. 공부를 마친 후에도 이 매력적인 도시에 남기로한 아나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이민자 그룹이 도시에 새로운 문화와 사업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베를린으로 이주한 젊고 창의적인 외국인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가 베를린 전체 땅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리아 내전이 점점 악화되면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중동의 난민들은 이러한 외국인 혐오증을 더욱 부추이게 되었다. 아나마리아와 몇몇 친구들은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베를리너들의 외국인 혐오증이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유로움과 창의적 분위기를 찾아 이주해온 이민자와 전쟁의 포화를 피해 모여든 난민들이 베를린 원주민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일까? 아나마리아는 이들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아나마리아 본인이 이민자로서 무엇인가 베를린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자신을 포함한 이민자들도 문제해결에 직접 기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Give Something Back to Berlin'.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About, Results, Testimonials, Press, Partners, and a 'SUPPORT US!' button. Below the navigation is a grid of featured projects and news items, including 'Prix Ars Electronica', 'GSBTB BuntKicktGut Open Football', 'A room of one's own - GSBTB female...', 'Inviting eight Syrians for Christmas', 'Info about GSBTB's own weekly pro...', 'Free online course: MigrationMatters', and 'Making home feel like home/creatin...'. In the center, there is a logo for 'GIVE SOMETHING BACK TO BERLIN' with the tagline 'Making worlds meet for a better city'. Below the logo is a red button that says 'CLICK HERE TO OFFER A GIVING / HIER KLICKEN UM EIN GIVING ANZUBIETEN'. At the bottom, there are two main sections: 'ORGANISATIONS SEEKING / ORGANISATIONEN SUCHEN' and 'NEW BERLINERS OFFERING / NEUBERLINER BIETEN AN'. The 'ORGANISATIONS SEEKING' section lists several opportunities: 'Help us write menus and a business plan for our Open Kitchen', 'GSBTB yoga for refugees and volunteers!', 'Translators needed for GSBTB/Buntkicktgut Open Football', and 'Take a person with decreased mobility for a spin on a rickshaw'. The 'NEW BERLINERS OFFERING' section lists: 'German speaking Team member needed for Sexual Violence & Harrasment Project', 'Free weekly guided tours for newcomers at Berlin's museums', and 'Israeli group facilitator offers special theatre workshops in English'.

### Give Something Back To Berlin 홈페이지

이런 생각으로 아나마리아는 2012년 [베를린에게 보답을!\(Give Something Back To Berlin: GSBTB\)](#)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시작하였다. GSBTB의 첫 활동은 간단했다. 주로 베를린 시내의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필요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알리고, 이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여 이들 단체에 연결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어린이 보육센터의 영어학습교실 교사, 노숙인 쉼터 부엌 봉사, 청소년 클럽에서의 미래 경력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 등에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페이스북 그룹의 이름은 베를린을 사랑하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베를린을 위해 사용하고 무엇인가 기여하자는 취지를 그대로 뜻하고 있다.

그룹이 시작되고 3 개월만에 80 여명의 이민자들이 가입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GSBTB의 활동에 공감한 자원봉사자들은 베를린시내의 좀 더 많은 사회단체와 기관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다니며 파트너 프로그램을 찾고 더 많은 봉사활동 기회를 모았다. 참여하는 자원봉사들도 이주민뿐 아니라 베를린 원주민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장은 봉사활동을 매개로 이민자들과 베를린 원주민들이 교류하게 되는 기회까지 제공하게 되었다.

단순한 페이스북 그룹에서 시작된 GSBTB의 활동은 4년이 지난 현재 약 60 여개국에서 이주해 온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이 60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GSBTB에서는 주로 세 그룹간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민자와 정착에 필요한 집, 직업, 공동체 등을 아직 찾지 못한 난민, 그리고 베를린 원주민들 간의 만남이다. GSBTB의 첫 시작은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전문직 종사의 이민자들이 베를린을 위해 무엇인가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시작했었다. 하지만 곧 합법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취득했지만 여전히 베를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난민들은 독일정부로부터 살 곳과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받고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베를린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에도 쉽게 편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베를린에 자신들보다 먼저 이주하여 정착한 이민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과 도움을 찾아 GSBTB에 가입하였다.

이들의 가입은 자연스럽게 GSBTB의 활동이 난민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현재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난민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베를린 원주민과 삶에 다소 여유가 있는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GSBTB는 약 95여명의 정기 자원봉사자와 290여명이 넘는 난민들이 매주 10개의 프로젝트(요리모임, 예술쉼터, 영어교습, 음악학교, 요가모임, 여성들만의 모임, 베를린 커뮤니티와 만남, 축구모임, 수다떨며 독일어/영어 배우기, 난민투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10개의 프로젝트 중 몇가지를 소개해본다.

### GSBTB 요리 모임

매주 1 회씩 모여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먹는 모임이다. GSBTB의 난민 관련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베를린 시내의 Oranienplatz 라는 광장은 베를린에 정착한 난민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이곳에 모이는 난민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독일정부에 대한 불만을 함께 토로하는 공간이 되면서 주변의 긴장감은 올라가고 있었다. 2013년 가을 GSBTB를 통해 만난 이민자들과 베를린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주일 한번씩 만나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이 광장에 모인 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고조되는 긴장감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광장에서 간단히 바베큐 요리와 식사를 하던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갔다. 이후 야외공간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요리 세션이 광장관리당국에 의해 불허되고 몇 번의 요리장소를 옮겼다. 요리모임에 참석해본 GSBTB의 자원봉사자와 난민들 모두는 이 모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어느덧 그들은 하나의 커뮤니티로 연대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임의적으로 모이던 장소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함께 요리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나섰다. 2015년부터는 요리모임의 중요성에 공감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부엌과 식당에서 매주 1 회 이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베를린내 난민과 다른 커뮤니티들이 함께 어울리고 통합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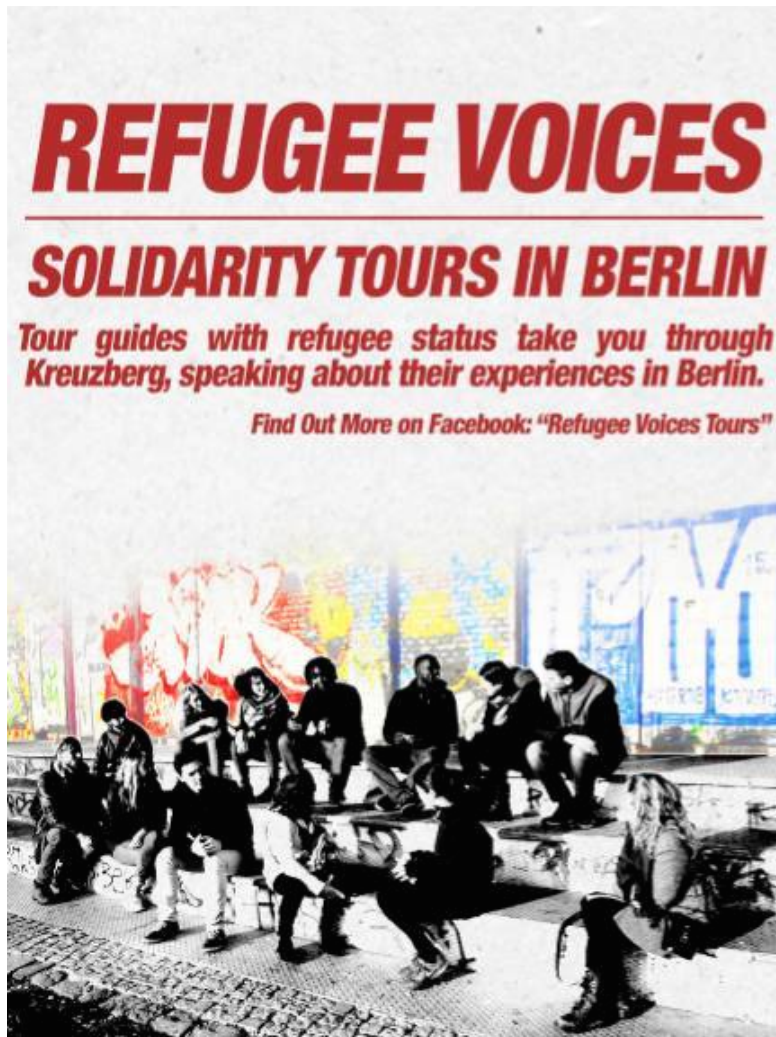


GSBTB 요리모임 사진출처 - GSBTB 홈페이지 (<http://gsbtb.org/blog/The-GSBTB-Cooking-Group-How-food-created-friendships-and-community>)

### 난민의 목소리: 연대 투어

GSBTB의 요리모임을 통해 만난 난민들 모두가 가장 제일 많이 듣게되는 질문은 유사하다. 난민들이 떠난 자신들의 본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생긴 것인지, 본국에서 베를린까지의 험란했을 여정은 어떠했는지,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고향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이 공통된 질문이다. 질문은 공통되지만 난민 한사람 한사람의 대답과 스토리는 모두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절절함이 묻어나는 한 인간의 이야기이다. 난민 한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실제 경험을 듣다보면 더 이상 난민이라는 이름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와 그녀의 이름이 들리고 그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 GSBTB 요리 모임을 통해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자원봉사자들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난뒤 함께 베를린 투어를 조직하였다.





난민의 목소리 - 연대투어,

포스터 출처: Refugee Voices Tour Berlin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refugeevoices tours/>

투어는 난민이 직접 가이드로 나서서 그가 떠나온 시리아에서 최근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베를린내 역사적 건물과 장소를 방문하면서 이야기하게된다. 베를린 역사 속 사건들 중 현재 시리아 내전과 유사한 사건들을 끄집어 내어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베를린 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겪고있는 현재의 경험에 대한 공감을 느끼도록 투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또다른 투어는 베를린에 도착한 난민들이 독일정부로부터 법적인 난민 지위를 받을 때까지, 그들이 임시거처와 무단점거한 거처 등으로 옮겨다닌 여정을 돌아본다. 현재 베를린에 입성하게된 난민들이 법적으로 거주보장을 받을 때까지 힘겨운 과정을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로 들어보는 투어이다.

### GSBTB 열린예술센터

난민들이 베를린 입성 후 기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매우 두렵고 불안하다. 고향에서부터 베를린까지 여정에서 겪었던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경험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일가친척이나 친구하나 없이 혼자 베를린으로 건너오게 된 사람들도 많다. 새로 정착한 베를린이라는 낯선 도시에서는 난민보호소라는 숙소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게 된다. GSBTB의 자원봉사로 참여한 심리치료사 하니아 하키엘은 폴란드에서 온 이민자이다. 하니아는 난민보호소에 기거하고 있는 난민들이 예술, 손공예, 음악, 연기, 춤,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서로간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난민보호소에는 시리아인 뿐아니라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다른 내전국에서 온 난민들도 함께 기거하고 있다.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난민보호소 공간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 못되었다.



GSBTB 열린 예술쉼터 활동 - 사진출처 : GSBTB 홈페이지, <http://gsbtb.org/blog/GSBTB-Open-Art-Shelter-a-safe-and-creative-space>



하리아가 시작한 프로그램은 보호소의 회색벽에 함께 벽화 그리기, 어린이들과 그림 그리기, 여성들의 손뜨개질 /바느질 모임, 청소년들의 그림을 이용한 고향의 스토리텔링, 재활용품을 이용한 다양한 공예품 만들기 등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리아는 난민들의 고향에서 활용하던 그림그리기, 화장, 바느질, 서체 기법 등을 그대로 발휘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난민들은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보호소내의 다른 난민에게, GSBTB에 참가한 베를린시민에게 마음을 열고 시작한다.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림, 공예품, 벽화 등은 무미건조하고 음침한 난민보호소를 밝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한다. 힘들었던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난민들은, 베를린 도착 후 새로운 삶을 시작점을 찾게된다. 아트 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보호소의 친구들과 GSBTB의 친구들이 생기고,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GSBTB 열린음악학교

# GSBTB Open Music School - Because Everyone Deserves Good Music!

Added by / Von When / Wann 3 months ago



GSBTB 열린음악학교와 밴드활동 - 사진출처: GSBTB 홈페이지

<http://gsbtb.org/blog/GSBTB-Open-Music-School-because-everyone-deserves-good-music>

GSBTB가 만난 난민 중에는 아프리카 토고에서 온 전문음악인도 있었다. 그는 GSBTB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난민을 모으고 자원봉사들 중 베를린 음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즉석 잼(Jam) 밴드를 구성하여 매주 연습을 시작하였다. 이 모임은 지속되어 두개의 난민밴드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 이들의 공연을 본 난민과 자원봉사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비슷한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GSBTB 열린음악학교를 시작하였다. GSBTB는 악기 연주를 배우길 원하는 난민, 악기 연주를 가르치길 원하는 난민,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같이 밴드를 구성하기 원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연결하여주고 음악활동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 이들의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역시 GSBTB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수시로 문의하고 제공받고 있다.

### GSBTB 커뮤니티 팀업 이벤트

월 1회 열리는 이벤트로서 주로 GSBTB에 처음 가입하는 자원봉사자, 난민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행사이다. 자신을 소개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이야기한다. 이야기 후 즉석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공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의논한다. 이 때 재능을 제공하는 그룹은 단지 베를린 원주민이나 여유가 있는 이주민 뿐만은 아니다. 난민들 중에서도 다른 난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이나 기회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재능 제공자로 나선다.

### 공유주택 Refugio

온라인에서 시작한 GSBTB의 활동이 점점 확대되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GSBTB는 적지않은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공간확보가 필요했고 파트너로 난민들의 공유주택인 Refugio의 사무공간에 입주하고 이곳의 홀을 주요 공간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난민들의 공유주택 Refugio에는 난민을 위한 개인과 가족용 침실, 공유 부엌과 욕실, 난민들이 운영하는 카페, 사무실 공간, 만남의 홀과 미팅 공간 및 야외 옥상까지 확보되어 있는 5층 건물이다. 공유주택 Refugio의 창업자 스벤 라거는 가족이 기거하는 그들의 집도 바로 이곳이다. 스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간의 혐오와 갈등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용되던 공동주택을 경험한 후 이 모델을 그대로 베를린에서 2014년부터 시작하였다. 난민이 아닌 여유있는 이민자 스벤은 공유주택의 난민들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살면서 같은 커뮤니티로 삶을 공유하고 있다. 난민보호소에서 퇴거한 난민들은 이곳에서 약 1년~2년간 거주하면서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고 새로 시작하는 삶에 필요한 자신감과 기술 등을 익히게 된다.







공유주택 Refugio 에서 진행된 다양한 GSBTB 이벤트들 - 사진출처: 공유주택 Refugio 홈페이지

<https://sharehaus.net/refugio/>

이상과 같은 GSBTB 의 활동의 공통 테마는 GSBTB 가 아니면 서로 만나기 어려운 다른 커뮤니티간의 만남과 서로를 알아가기이다. 베를린 원주민, 난민, 삶의 여유가 있는 이민자들 세 그룹이 각자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간다. 위에 소개한 난민 관련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베를린 시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이들이 함께한다. 실로 베를린시에 무엇인가를 보답하면서 내가 속해있지 않았던 커뮤니티의 “사람”을 알아간다. 또 다른 GSBTB 의 중요한 요소는 참여자 모두가 서로를 돕고 공유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여유가 더 있는 그룹이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원조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여유있는 이민자이든, 베를린 원주민이든, 난민이든, 참가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공유할 수 있는 재능을 필요로 하는 다른 대상에게 제공한다. GSBTB 는 시작부터 페이스그룹 하나로 시작했고 그 뒤 오프라인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참가자들의 필요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초창기 프로젝트인 요리모임은 서로 다른 그룹간의 이름표와 경계를 두지않고 누구나 어울려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커뮤니티로 통합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모임을 통해 너희들과 나는 태생이 달라, 혹은 내가 너를 도울게하는 생각들을 쉽게 없앨 수 있었다. 대신 요리하고 밥먹으면서 이야기하다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그것들이 실천되었다.

GSBTB 의 이와같은 공유와 공동제작의 방식이 기존의 난민지원 프로그램과 다름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멘토 프로그램과 같은 수직적인 도움주기 프로젝트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GSBTB 는 다양한 소셜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독일 친구”, 새로운 “베를린 친구”를 만나도록 주선한다. 도움이 필요한 난민이라면 새 친구를 통해 베를린내 친구의 다른 네트워크를 제공받아 도움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새로 베를린에 도착한 난민들이 쉽게 GSBTB 커뮤니티와 어울리는데, GSBTB 에서 활동하는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민자와 난민인 것도 도움이 된다. 위에서 소개한 열린음악학교, 연대투어, 열린예술센터 모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함께 친구로 어울리다가 제안된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로 실천되고 있는 사례이다. 공유와 공동제작 방식의 프로젝트 기획과 진행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룹으로 치부되는 난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준다.



난민들을 가장 어렵게하는 것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생사를 뚫고 살아나 베를린이라는 낯선 도시에 안전하게 도착했지만, 앞으로 어떤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무엇을 하고 어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하다. GSBTB 가 제공하는 문턱없는 프로젝트들과 자연스러운 베를리너들과의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전쟁이 나기전 고향에서 자신이 갖고있던 재능과 능력을 다시 끌어내게 한다. 지난 5월 GSBTB 가 코디네이터들이 상주하고 있는 공유주택 Refugio 에서 만난 말라케의 이야기는 이를 말해준다.

시리아에서 유명 방송인이었던 말라케는 시리아 내전 후 요르단으로 피난후 14 개월에 여정을 거쳐 베를린에 도착하였다. 말라케는 시리아에서 요리를 하면서 유명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인 “부엌의 여왕”의 메인 호스트였다. GSBTB 에서 만난 베를린 친구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자 친구들을 말라케에게 시리아 요리를 같이해서 나누어 먹기를 권했고, 요리모임에 참여하였다. 이후 말라케는 시리아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시리아 요리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게되었다. 필자도 말라케가 만들어준 노란콩과 콜리플라워가 가득한 점심을 한 그릇 푹딱 비우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말라케에게 직접 듣는 시리아 내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속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난민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인도주의차원에서 고민되는 사례가 아니었다. 그냥 말라케의 이야기였고, 말라케는 나에게 너무나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준 내 앞에서 환한 웃음을 웃고있는 30 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GSBTB 의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럽내 난민의 문제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날 함께 만난 역시 자원봉사이자 GSBTB 의 비즈니스 개발 이사로 일하고 있는 멜리사 프롭스트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경을 넘어선 난민들을 보호소라는 한 공간에 감금하다시피 “수용”해놓고, 거주비자를 빨리 주지 않으며 격리하는 방식은 오히려 난민들을 폭력적인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로 만들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이 땅에 도착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사회에 편입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더 나은 도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난민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난민을 격리하면 격리할 수록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도시의 계도와 슬럼이 되며, 이는 또다시 자국민의 혐오대상이 되는 범죄자와 빈곤자들의 집단으로 남겨질 수 밖에 없다. GSBTB 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럽 난민의 문제를 더 이상 물리적인 빗장을 닫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더없이 필요한 활동이다.

유럽의 난민의 문제가 과연 강건너 불구경할 일일까? GSBTB 에 필자와 방문하였던 다른 한국의 지인들은 유럽의 난민 문제에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선족, 탈북자 및 동남아의 빈곤국에서 이주해온 산업근로자와 농촌의 아내들을 떠올렸다. 중국 이주민들의 잔인한 살인사건을 보면서 이주민을 “그들”로 규정하면서 혐오하고 격리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알아가는 기회는 얼마나 있을까? 한국내에서 그들은 식당에서 서빙 종업원, 중소공장 산업 근로자, 농촌 노총각들의 젊은 아내들로 밖에 만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와 함께 요리하고 밥을 먹고, 함께 음악밴드를 만들어 공연을 하는 모습이 쉽게 상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 참고자료

Give Something Back to Berlin 홈페이지, <http://gsbtb.org/about>

GSBTB 창업자 아나마리아 올슨(Anamaria Olsson) 인터뷰,

<http://thechanger.org/community/GSBTB-better-city-and-world>

2016 년 5 월 17 일 GSBTB 방문 - 창업자 아나마리아 올슨, 시리아 난민/GSBTB 참가자 말라케 자즈마티, GSBTB 비즈니스 개발 이사 멜리사 프롭스트, GSBTB 열린예술센터 매니저 하니아 하키엘 인터뷰

글 - 스프레드아이 공동대표 김정원 (jungwon@spreadi.org)